

# 미국은 지금

## 네오클라우드, 버블의 끝일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Equity Analyst 조민주 mj3346@kiwoom.com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 Issue Brief

#### AI 버블인가? 과열은 맞지만 버블의 정점은 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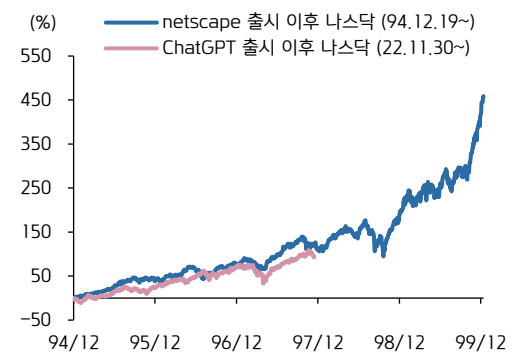
닷컴 버블과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AI 버블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과열 신호들을 공유한다. 이러한 유사점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요소이다. 다만 동시에 두 시기의 핵심 차이점 역시 뚜렷하며, 이는 여전히 AI 산업의 의미 있는 추가 투자 기회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폭발적인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확장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점을 보면, AI 관련 기업들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자본지출과 이익 대비 두드러진 매출 증가세, 내부 순환 투자 징후와 높은 밸류에이션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들도 충분하다. 우선 AI 서비스의 확산 속도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ChatGPT는 출시 불과 3년만에 사용자 수 8억명을 돌파하며 인터넷의 12년간 거쳐온 채택 속도를 단기간에 추월했다. 그럼에도 AI 기술은 아직 "Agent AI+Physical AI"로 전환되는 응용 초입기에 위치해 관련 수익화 서비스가 점차 본격화될 경우 컴퓨팅 수요는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닷컴 버블과 다르게 AI 기술력 확보가 국가 패권 경쟁의 거대한 축으로 부상한 점도 근본적 차이가 있다. AI Action Plan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AI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범국가적 정부 개입과 지원을 명시했으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동맹국간 공동 인프라 투자도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즉 정부가 시장 수요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로 단기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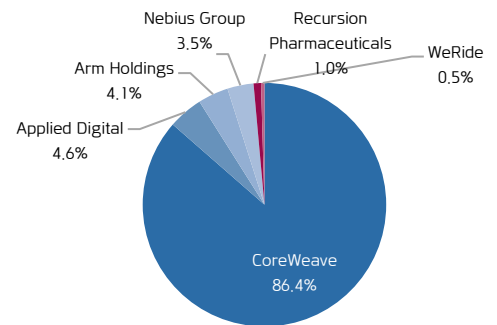
내부 순환 투자 및 과잉 투자 논란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닷컴 버블 당시 무분별한 IPO/증자와 달리 강한 현금흐름 보유한 빅테크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경우 스타트업 투자가 전체 매출의 3~7%에 불과해 주요 투자 수요가 기초 체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잉 투자의 경우에도, 광섬유 네트워크망은 2002년

#### 닷컴 버블과 AI 강세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엔비디아 FY3Q25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실제 점유율이 불과 3~5%에 불과했지만, AI 인프라는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FY1Q25 기준 글로벌 데이터센터 공실률은 6.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력, 공간, 장비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 지연도 구조적인 공급 부족을 반영한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버블의 정점이라고 단정하기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과거 닷컴 버블 시기 대표 인프라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TTM PER 기준)을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AI 인프라 확장 사이클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시장 내 독점적 지위라는 프리미엄을 감안, 과열보다는 구조적인 성장 사이클의 중반부에 위치해있음을 시사한다고 판단한다.

### 네오클라우드가 주목 받는 이유 3 가지

결국 AI 워크로드에 특화된 데이터센터 용량 수요 증가 흐름 속 하이퍼스케일러를 포함한 AI 인프라야말로 AI 생태계 내 가장 높은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1)과거 CPU 기반 일반적인 클라우드가 아닌 고성능의 GPU 등 가속기를 이미 확보한 네오클라우드 업체의 경쟁적 우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그 중에서도 AI 용 고성능 GPU 의 제한적 공급과 높은 가격, 막대한 초기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엔비디아와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한 소수의 클라우드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직접적인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자사 GPU 기반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코어워브, 네비우스 그룹, 어플라이드 디지털이 포함된다. 코어워브와 네비우스 그룹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10 개 기업에 불과한 소수의 핵심 파트너에게만 부여되는 'Reference Platform NVIDIA Cloud Partners'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3)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센터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PEX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가동까지 진행되기엔 초기 인프라 건설, 전력 확보 등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긴 리드타임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직접 CAPEX 투자를 단행할 경우, 막대한 자본지출 증가와 회계상 감가상각 문제 등으로 시장의 과잉투자 우려가 자극될 수 있고, 전력 사용의 과점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도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사용량(시간당 GPU 사용 개수)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가격 책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에 빅테크 뿐만 아니라 AI 응용 서비스 활용 기업들 대상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객에게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막대한 현금흐름을 보유한 빅테크라도 상위 문제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클라우드 용량 확보를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는 네오클라우드가 함께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 리스크 요인 감안하더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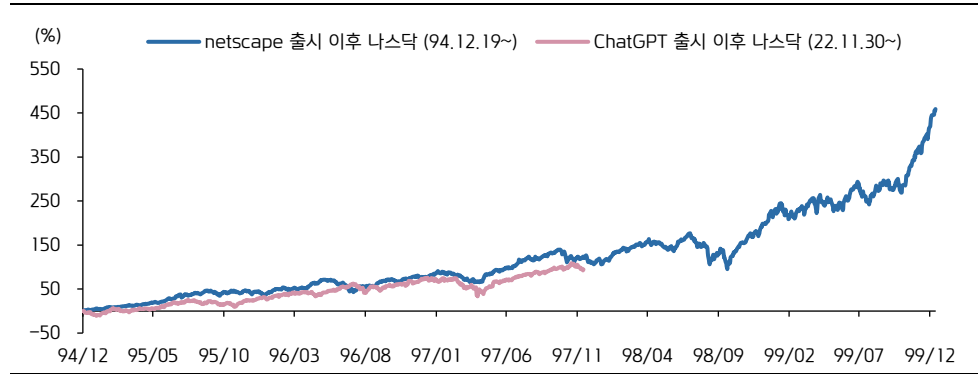
다만 최근 높은 고객 집중도와 예상하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계약 시기, 그리고 높은 자본 집약도와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이 최근 투자심리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수익 구조가 데이터센터의 용량과 GPU 가격, 즉 CAPEX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객 유입 및 계약 연장이 외형 성장과 이익 창출의 전제이다. 따라서 초과 수요 상황이 빠르게 역전되거나 신용 사이클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 악화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도 불확실성이 유입될 경우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FY3Q25 실적 발표 당시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강한 백로그와 유효 전력, 그리고 계약 전력 용량 확대를 발표하며 여전히 높은 수요와 안정적 전력 확보에 기반한 강한 성장세를 증명했다. Microsoft와 OpenAI, Nvidia, Meta 등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이 동반되었을 뿐 아니라 고객 기반의 다변화도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코어위브는 현재 매출 백로그 내 최대 단일 고객 비중이 35%로 낮아졌다고 언급한 바 있다.

코어위브가 언급한 CAPEX 축소 이슈 또한 특정 제 3자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의 건설 지연 영향으로 인한 물리적 공간 부족 현상이 주 원인으로 수요가 너무 높아진 점이 오히려 공급 지연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높아진 수요가 역설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리스크 요인을 상쇄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계약 고객이 이미 CAPEX 지연에 인지 및 동의했고, 시기의 문제일 뿐 백로그 취소는 없었다고 언급한 만큼 내년 1분기 데이터센터 건설 완료 혹은 추후 램프업에 대한 정상화 신호가 나타날 경우, 주가의 회복도 가파르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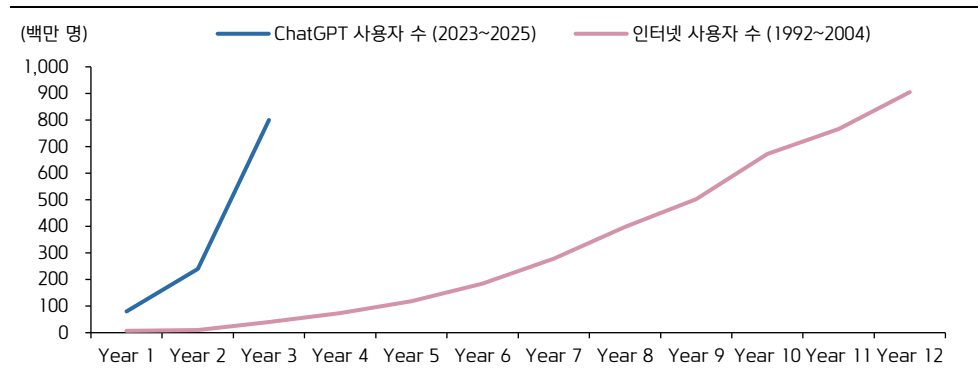
따라서 AI에 따른 전례 없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장 사이클, 정부의 유동성 유입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고객 확보 및 자금 조달에 기반한 가파른 성장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히 엔비디아의 직접 투자로 인해 경쟁사 대비 빠르고 안정적인 GPU 공급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및 추론 서비스까지 함께 풀스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경우, 경쟁적 우위에 기반한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최근 조정은 중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닷컴 버블이 보여주는 AI 강세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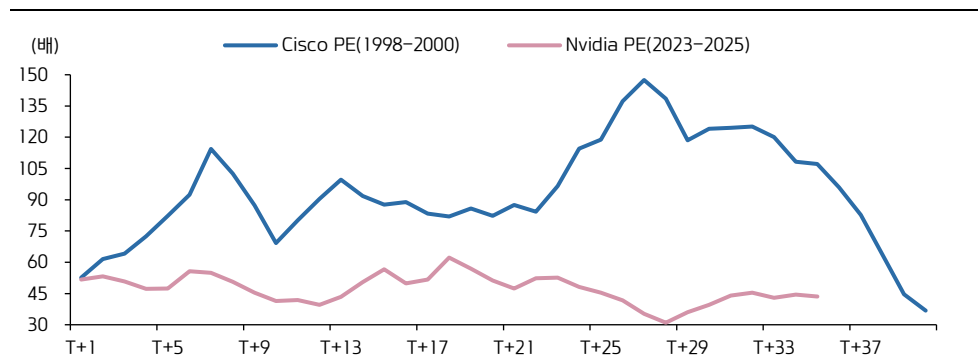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ChatGPT 도입 속도, 출시 불과 3년 만에 8억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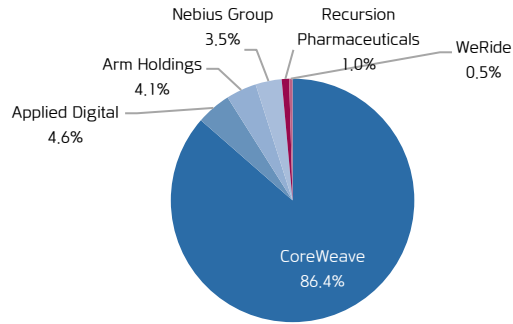
자료: Datareportal, ShahidShahmiri, 키움증권 리서치

### 닷컴 시대 시스코 시스템즈 vs. AI 시대 엔비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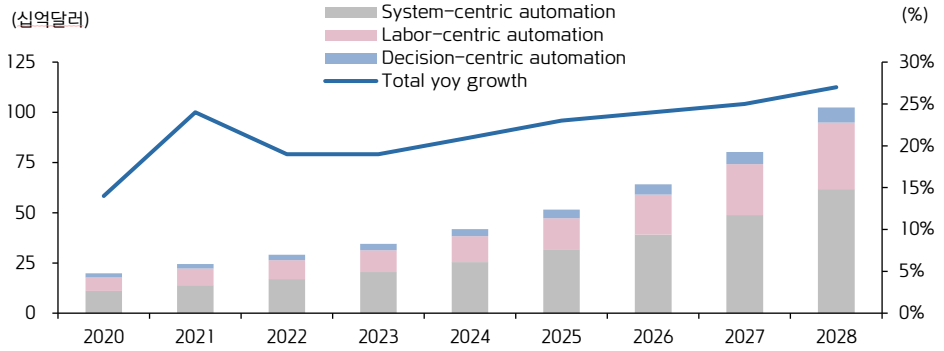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TTM 기준 P/E

엔비디아 FY3Q25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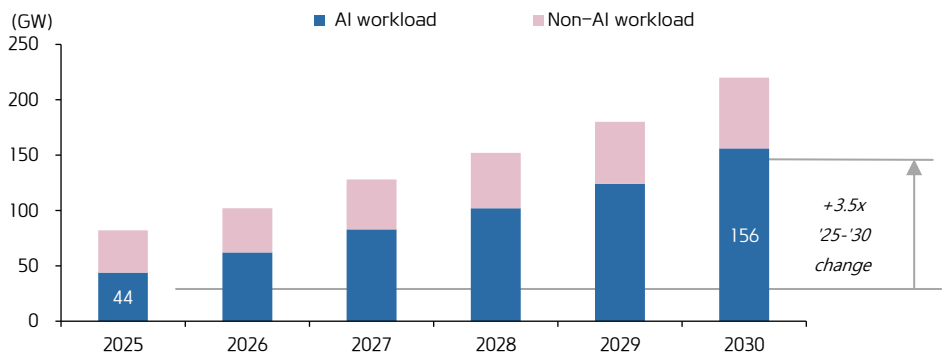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 시장 성장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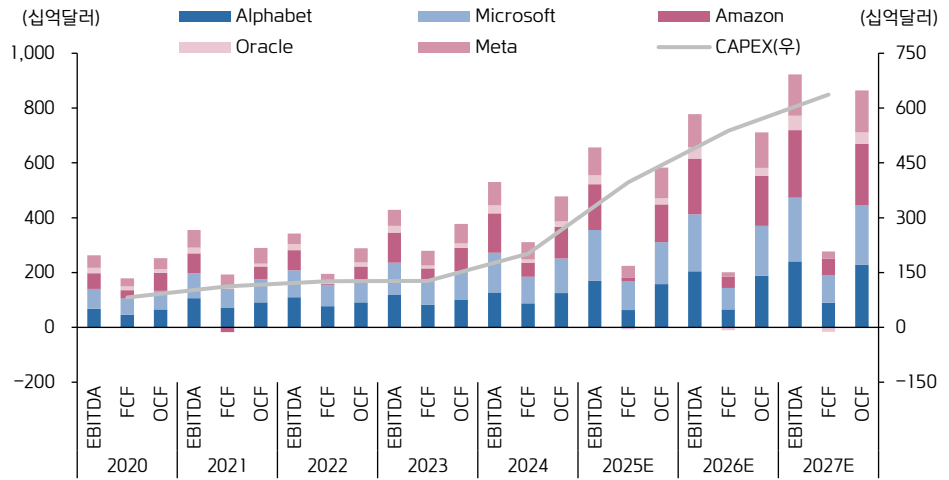
자료: IDC Research, 키움증권 리서치

데이터센터 AI 워크로드 CAPA 3.5배 증가 예상



자료: McKinsey,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내 Top 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apex, EBITDA, 현금흐름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빅테크, 2026년 AI 인프라 투자 기조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

구분	2025 CAPEX	2026 CAPEX	자체 ASIC 칩
마이크로소프트	기존 둔화 전망을 확장 기조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기조 유지하며 2026 CAPEX 확대 예상</li> <li>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각각 앤트로픽에 50억 달러, 100억 달러 투자. 앤트로픽은 향후 3년 동안 MS 애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30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자원 구매. 이용 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b>Maia 칩 양산</b>이 2026년으로 6개월 지연('25.06)</li> <li>Intel 18A 공정 기반 Maia 2 수주는 비공식 보도 수준('25.10)</li> </ul>
메타	\$700-720억으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인프라, 외부 클라우드 계약 확대에 따른 FY25 대비 <b>큰 폭의 FY26 CAPEX 성장</b>을 언급</li> <li>향후 3년 동안 미국 AI 산업에 6천억 달러(약 88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 이는 9월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당시, 마크 저커버그 CEO가 약속한 투자 규모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 학습(Training)용 자체 칩 MTIA('25.03) 테스트 공개. 성공 시 2026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통해 엔비디아 의존도 축소 및 인프라 비용 절감할 계획</li> <li>'26년부터 AI 학습용으로 고연산 작업 대상 자체 칩 활용 계획</li> </ul>
구글	기존 \$850억 → \$910-930억으로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Y4Q25, FY26 CAPEX에도 <b>상당한 증가 있을 것으로</b> 예고</li> <li>6개월마다 컴퓨팅 2배, 4~5년 내 1,000배 확대를 목표로, 자체칩(TPU)과 공동 설계에 기반한 AI 인프라 용량의 공격적 증설 계획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PU 라인업의 중심인 7세대 <b>'Ironwood' GA(일반 공급) 예정</b>.</li> <li>TPU 캐파 투자 확대로 고객/파트너 수요 대응 예정</li> <li>Anthropic <b>'최대 100만 TPU' 계획</b>('26부터 본격 가동 예상)</li> </ul>
아마존	\$1,25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Y25 대비 <b>FY26 CAPEX상향</b> 예고 (Trainium 칩 및 리테일 물류 인프라 투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 칩 Trainium2, <b>가격대비 성능 30~40% 우수성</b> 재확인</li> <li>Project Rainier, Anthropic 사용 증으로 50만개 가동 중, 향후 <b>Trainium 2 100만개 사용</b> 계획 발표</li> <li>'25년 말 이전 Trainium 3 프리뷰, '26년 초 대규모 램프 계획</li> </ul>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 네오클라우드에 투자하는 ETF

11월 25일 국내 증시에 네오클라우드 특화 ETF인 **"RISE 미국 AI 클라우드인프라" ETF**가 신규 출시되었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AI 테마 ETF들이 상장되어 있지만, 대부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플랫폼, 전력 중심이었다면, RISE 미국 AI 클라우드인프라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Akros 미국 AI 클라우드 인프라 지수를 기초지수로 추종하며, 하이퍼스케일러 및 빅테크를 제외한 1) 네오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4 종목과, 2)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 6 종목에 집중 투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중은 네오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 상위 2 종목에 20%, 나머지 2 종목에 각 8%로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네오클라우드 퓨어플레이어(Pure Player)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상위 2 종목 각 8%, 나머지 4 종목 각 7%)에 투자한다. 또한 연 4회 정기 리밸런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를 보다 면밀히 추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1월 25일 기준 구성 종목은 네비우스그룹(NBIS) 19.6%, 코어위브(CRWV) 13.8%, 버티브홀딩스(VRT) 9.8%, 마벨 테크놀로지(MRVL) 9.7%, 어플라이드디지탈(APLD) 9.7% 순이다. 네오클라우드 상위 2개사로 선정된 네비우스, 코어위브는 GPU-as-a-Service에 특화되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AI 클라우드 사업자다.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먼저, 크게 도입한 플레이어이기도 하다.

네비우스는 개인~국가 단위 프로젝트에 이르는 고객 대상으로 AI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2024년엔 엔비디아를 포함한 사모펀드로부터 7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유치했고, 현재 약 3만 대에 달하는 엔비디아 H200 칩을 활용해 AI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코어위브 또한 일찍이 2022년 GPU 클라우드로 방향성을 잡으며 2023년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대표 네오클라우드사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는 작지만, 엔비디아의 최신 AI GPU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오픈 AI, MS, 메타 등 빅테크/하이퍼스케일러에도 서버 공급자로 활약 중이다.

하이퍼스케일러 vs 네오클라우드

구분	하이퍼스케일러	네오클라우드 (AI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 CPUaaS)
정의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데이터 집약적 작업을 위해 고성능 컴퓨팅 파워 제공에 중점을 둔 클라우드 기업
특징	글로벌 표준 기반의 신뢰성 높은 풀스택 인프라, AI 플랫폼·툴 등 사용자 친화적인 자체 생태계 보유	중소 규모의 분산형 인프라, 전략적 자금 조달, 하드웨어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으로 고객 요구에 맞춰 빠른 확장 가능
주요 하드웨어	CPU (복잡한 명령어의 순차적 처리에 특화)	GPU (단순 연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렬 처리에 특화)
서비스 목적	범용 컴퓨팅	AI, 머신러닝 등
서비스 제공 형태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사양과 용량을 사전 정의해 패키지 형태로 제공. 표준화된 요금제 (ex. GPU 8개 + Vcpu 96개 + 1.1TB RAM → 21\$/hr)	고객 요구에 맞춰 커스텀 및 최적화 가능 사용량에 비례한 투명한 비용 책정
비용*	시간당 98 달러	시간당 34 달러
주요 고객	기업 전반	AI·머신러닝 활용이 많은 스타트업과 연구기관, 부분적으로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AI 서버 확장이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러와 빅테크 등
주요 기업	아마존(AWS), 구글(Google Cloud) 마이크로소프트(Azure)	코어워브, 네비우스, 람다(비상장)

자료: KB자산운용, 키움증권 리서치  
주) \*엔비디아 H100 칩 1대 사용 시 하이퍼스케일러와 네오클라우드의 평균 비용(25.2, Uptime Institute)

ETF 개요

ETF 명	RISE 미국 AI 클라우드인프라
코드	0127R0
상품 유형	주식형
운용사	KB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Akros 미국 AI 클라우드 인프라 지수
복제방법	실물 (패시브)
총보수 (운용보수)	0.40% (0.359%)
연금투자 가능 여부	개인연금 100%, 퇴직연금 70%
구성종목 수	10 종목
정기 변경	연 4회(1, 4, 7, 10월)

자료: KB자산운용, 키움증권 리서치

미국 네오클라우드 및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기업

티커	기업명	개요
NBIS	Nebius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 검색엔진 기업 Yandex 에서 분사한 클라우드 기업. 개인부터 국가 단위 AI 프로젝트에 이르는 고객을 대상으로 AI 혁신 가속을 위한 풀스택 서비스 제공</li> <li>유럽과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및 코로케이션 사이트(임대형 서버) 운영. '25년 3월 기준 약 3만대의 엔비디아 H200 칩을 활용해 AI 최적화 서비스 제공 중. 서버, 랙 등 기초 인프라부터 자체 설계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강점</li> </ul>
CRWV	CoreWea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호화폐 채굴로 사업을 시작, 2018년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보유하고 있던 GPU 인프라를 활용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전환. 미국과 유럽에서 30여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강점</li> <li>엔비디아 지분 투자와 파트너십, 오픈 AI 와 대규모 컴퓨팅 계약 체결뿐 아니라, 인프라의 일부를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클라우드에 임차하는 등 주요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라의 서버 공급 협력자로 주목받는 중</li> </ul>
APLD	Applied Dig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암호화폐 채굴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데이터센터, HPC 호스팅, 클라우드컴퓨팅 등에 특화 기업으로 전환 중</li> <li>과거 암호화폐 채굴용 인프라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고성능 GPU, 전력 인프라 등 클라우드컴퓨팅 최적화된 인프라 기반을 확보. 경쟁력 있는 전력 단가, 자체 설계 및 운영을 통한 인프라 제어력, 가용성 등에 강점 보유</li> </ul>
ORCL	Ora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B 소프트웨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솔루션에 강점을 지닌 기업으로 SaaS 제품군과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주 사업부문. 2Q25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3%(5위)</li> <li>DB 소프트웨어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클라우드 사업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DB 와 연동한 클라우드를 제공해 Lock-In 효과 강화. 기존 아키텍처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AI 기능까지 사용 가능한 OCI 서비스가 성장 동력</li> </ul>
VRT	Vertiv Hold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센터, 통신네트워크 등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업. 전력, 열관리, 랙, 모듈러 등이 주 제품, 고전력 GPU 보급과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액체냉각 및 전력 설계 역량 강화 중</li> <li>'25년 8월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Great Lakes Data Racks &amp; Cabinets, AI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Waylay 등 인수해 디지털인프라 솔루션 역량 강화</li> </ul>
MRVL	Marvell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제조하는 팹리스 기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솔루션에 강점</li> <li>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기광학통신 제품 매출이 증가 중.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AI 연산용 ASIC 으로 확장하며 매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아마존, 메타 등의 서버용 ASIC 수주도 확대</li> </ul>
SMCI	Super Micro Compu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성능 서버·스토리지 하드웨어 제조 기업. 에너지 효율적이며 맞춤 설계 가능한 하드웨어를 제공해 AI, 클라우드, HPC, 5G 등 워크로드를 지원</li> <li>엔비디아 서버를 구축한 주요 파트너사이며, Applied Digital 과 함께 AI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고 Lambda(비상장 네오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는 등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 확대 중</li> </ul>
DELL	Dell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EMC 를 인수하며 대규모 스토리지/데이터센터 사업 진출. 전통 PC 제조업에서 인프라/클라우드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 AI 수요 증가로 강화한 인프라솔루션그룹(ISG) 부문이 매출 증가를 견인 중이며, 엔비디아 기반의 엔드투엔드 생태계 Dell AI Factory 비즈니스도 성장세</li> <li>시스템 안정성/성능을 보장하는 관리형 서비스,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 Dell APEX, 기업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AI 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li> </ul>
ANET	Arista Net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기업으로 고성능 이더넷 스위치, 라우터, 네트워크 운영체제 및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하며, 데이터센터 중심 전략을 보완해 매출 성장 중. 엔비디아 외 AI 칩과 호환성 강화를 테스트 중이며, 확장성과 유연성의 강점으로 점차 산업 표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li> <li>'25년 7월 브로드컴 VeloCloud 사업부를 인수하며 에이전트 AI 맞춤 클라우드 네트워크 솔루션 역량 강화</li> </ul>
ALAB	Astera La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인프라 연결 솔루션 기업. 데이터센터 등을 대상으로 스케일업(하드웨어 성능 향상), 스케일아웃(서버 추가 및 확장)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칩, 모듈,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 저지연, 고처리량, 확장성을 강점으로 맞춤형 플랫폼 제공이 목표. 클라우드 기업, AI 칩 플랫폼 기업 등이 주 고객</li> <li>AI 워크로드 증가에 대응해 지능형 커넥티비티 플랫폼(Intelligent Connectivity Platform) 고안. 인프라 상태,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설계 가능</li> </ul>

자료: KB자산운용, 키움증권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은 11월 10일, “메타” 종목은 10월 27일 해외관심종목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